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마음열기

아래 내용은 인터넷 검색 창에 “하나님”이라고 검색한 결과를 나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계인인가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몸인가요?

왜 하나님은 소리가 안 들릴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위선자인가요?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일 가능성은?

하나님께 십일조, 현금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학살자가 아니라구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나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나요?

하나님 신은 한국 목사들이 창작한 신이라던데 사실인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만 신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 위의 내용들을 읽고 당신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당신에게 “하나님”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가복음 10:17-22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20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17-20절)

17절	
20절	
21절	

☞ 예수님은 이 훌륭한 청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의 요구에 이 청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21-22절)

예수님의 요구(21절)	
청년의 응답(22절)	

▣ 예수님이 보기에 모든 계명을 잘 지켰고 부유했던 청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했을지 출애굽기 20:3에서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에 비추어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아래 내용들에 대해 체크한 후 아래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십계명은 그저 특정 행동들을 금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의 비석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게 전부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 “000은 그의 삶에서 단지 살인은 하지 않았다. 간음은 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거짓 증언 하지 않았다. 남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부모를 공경했다.” 사실 위와 같은 것만을 실천해도 대단한 것이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어쩐지 허전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부자 청년도 자신이 잘 지켰던 그것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의 총합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보다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다. 예수는 그에게 예수가 요구하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뒤에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권유하셨다.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마도 그 청년에게는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첫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그래서 우리는 언덕을 오르는 삶을 추구했다. 우리는 또 오르고 또 올랐다. 언덕 위로, 조직의 사닥다리 위로, 서열 편성표 위쪽으로, 먹이사슬 위쪽으로, 사교계 인사 인명록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성경의 신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신이 제안한 길을 오르다보니 일하는 것, 버는 것, 성취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누구를 앞지를 수 있느냐에 관계된 일이 되었다.

▣ 만약 내 삶의 총합을 정의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삶과,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 삶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정한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을까요?

▣ 나의 삶에서 "그저 지키는 것"과 "더 깊이 추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적용과 결단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 들인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 쉬고 계시다면(이것도 예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로마서 8:9-15(메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일하시도록 '묻어 두어야 할 옛 삶'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옛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